

추 부총리,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금융시장·실물경제 영향 점검 및 대응방향 논의

- 국내외 금융시장·원자재가격 점검(모니터링) 강화 및 실물경제 영향 점검 철저,
필요시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히 대응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개최(10.11~13일)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 및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직전인 오늘 아침(10.10.(화) 오전 8:40), 기재부 1급 이상 간부 등이 참석하는 금융시장·실물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관련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우선, 추 부총리는 아직까지 사태 초기로 국제금융시장 움직임은 제한적*이나,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고 평가하면서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점검(모니터링)하는 한편, 관계기관 공조 하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 재점검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동향 점검을 강화하고 내수·투자 활성화 노력도 지속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지표 변화(10.9일, %)

: (美 다우)+0.6% (달러인덱스)+0.0% (유로스톡스)△0.8% (獨 DAX)△0.7%

(영국 FTSE)△0.0% (佛 CAC)△0.5% (상해종합)△0.4% (호주S&P/ASX)+0.2%

또한, 추 부총리는 이번 사태 직후 국제유가가 단기적 상승세(WTI 4.3%↑)를 보인 가운데, 앞으로 사태의 향방 등에 따라 변동 폭이 확대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이번 사태가 향후 국내 에너지 수급 차질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업부 및 관계기관과 함께 철저히 대응해 나가는 동시에, 과거 중동 분쟁 사례를 토대로 이번 사태에 따른 국제 에너지시장 움직임 등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할 것을 지시하였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최근 변동성이 확대된 국내 물가에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에너지 및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등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지시하였다.

추 부총리는 해외 출장기간 중에도 국내경제·금융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 받고, 필요시 부내 및 관계기관 전화·화상회의를 통해 선제적으로 조치 계획을 마련하는 등 현지에서도 이번 사태 대응 전반을 각별히 챙겨나갈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종합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영훈 (044-215-2710)
		담당자	서기관 신동현 (shindonghyun@korea.kr)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